

【비평논문】

만선사의 비판적 재인식을 통한 동북아시아사 구상

-井上直樹, 2013, 『帝國日本と‘滿鮮史’-大陸政策と朝鮮・滿洲認識-』, 塙書房-

위가야*·이정빈**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의 저서, 『帝國日本と‘滿鮮史’-大陸政策と朝鮮・滿洲認識-』(2013, 塙書房)을 소개하고 그 연구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데 있다.

이노우에 나오키는 일본의 한국고대사 연구자 중 하나로(이 책에서 저자는 스스로 동양사 전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京都府立大學 文學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로 동아시아와 삼국의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지만, 한국고대사에 대한 사학사를 정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다. 2004, 「近代 日本의 高句麗史 研究-滿鮮史・滿洲史와 關聯해서-」, 『高句麗研究』 18(李鎔賢 譯) ; 2005, 「高句麗史研究と‘國史’-そ歸屬をめぐって-(上・下)」,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22・123 ; 2006, 「日露戰爭後の日本の大陸政策と滿鮮史-高句麗史研究のための基礎的考察」, 『洛北四學』 8이 그 대표적인 성과로, 이 글에서 소개할 저서는 이상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저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I. 고구려사 귀속문제와 만선사

1. 고구려사 귀속을 둘러싼 대립

*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2. 중국·한국의 고구려사 인식
3. 전후 일본의 만선사 연구비판과 문제점

II. 근대 일본의 조선·만주인식과 러일전쟁

1. 초창기의 조선사 연구
2. 러일전쟁과 白鳥庫吉의 만선관
3. 러일전쟁 후 稻葉君山の ‘만선불가분론’

III. 러일전쟁 후의 조선 만주지배와 만주사 연구

1. 만주군 참모와 稻葉君山の ‘만선불가분론’
2. 白鳥庫吉·後藤新平과 만철역사조사부
3. 만철역사조사부와 만주사 연구

IV. 일본의 대륙정책과 만선사

1. 稻葉君山の ‘만선불가분론’과 조선인의 만주이민
2. 단군신화와 稻葉君山の ‘만선불가분론’

V. 만주국과 만선사

1. 만주국과 만주사 귀속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논쟁
2. ‘鮮滿一如’와 만선사

VI. 만선사와 고구려사 연구

1. 만선사로서의 고구려사
2. 고구려 연구의 시각

목차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이노우에 나오키는 고구려사의 귀속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역사분쟁에서 문제의 소재를 찾았다. 이는 「후기」에 보다 자세히 밝혀두었다. 저자는 1994년 9월부터 1996년 2월까지 중국 吉林大學에서 공부하였는데, 이때 한국과 중국의 역사인식에 차이점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특히 고구려 내지 발해의 활동무대가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한반도에 걸쳐 있으므로 그 연구에 현대의 국가나 민족 문제가 얽혀 있는

데 주목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만주와 조선반도를 하나의 역사지리적 공간으로 인식하였던 戰前 일본의 만선사에 관심을 기울였고, 저서의 문제의식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실제 만선사가 다시금 주목된 것은 2004년 무렵이었다. 이른바 東北工程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역사분쟁이 격화되는 한편 역사서술의 단위 내지 역사체계가 고민되었고, 이로부터 일제시기 만선사의 구조와 성격이 재검토되었던 것이다.¹⁾ 이노우에 나오키는 그 선두주자 중 하나였고, 본 저서는 그 일단의 결실이다.

저자는 이 책의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만선사 성립과 전개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밝힌다고 하였다. 둘째 만선사의 구조를 동태적 관점에서 보면서 고구려사의 귀속문제를 검토해 본다고 하였다. 이로써 국가와 민족을 넘어선 새로운 역사체계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연구는 여러 실증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그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그의 새로운 역사체계 모색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다. 이에 일단의 제언도 덧붙이고자 한다.

2. 러일전쟁과 만선사의 성립

일찍이 지적된 것처럼 만선사 연구는 러일전쟁(1904~1905)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가 『滿洲歷史地理』 서문에 밝혀두었듯

1)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한규철, 2004, 「연대별로 본 일본의 발해사 연구」, 『문화전통논집』 2,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6쪽; 최석영, 2004,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고구려·발해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김중복, 2006 「渤海史 認識의 推移-南北國時代論을 중심으로-」, 『史林』 26, 27~31쪽; 박찬홍, 2007(a), 「일제 「만선사학」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27; 박찬홍, 2007(b), 「滿鮮史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韓國史學報』 29; 사쿠라자와 아이, 2009,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불가분론」, 조인성 외,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鄭尙雨, 2010, 「稻葉岩吉의 「滿鮮史」 체계와 「朝鮮」의 재구성」, 『歷史教育』 116.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정빈, 2012 「식민주의 사학의 한국고대사 연구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검토」, 『역사와 현실』 83 참조.

러일전쟁 이후 滿韓경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선사가 연구되었던 것이다.²⁾ 특히 만선사를 하나의 역사체계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였는데, 그는 1904년 10월 육군 통역으로 압록강군 제1사단 사령부에 근무하였다. 이때 이나바 이와키치는 조선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만주를 경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에 만선사를 구상하였다고 이해된다.³⁾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종래의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하였다. 다음의 논문을 새롭게 주목한 것이다. 白鳥庫吉, 1907.04, 「歷史上た於ける滿洲の地位」, 『斯民』 2-1; 稻葉岩吉, 1907.06·07, 「韓半島の保障と遼東半島」(上·下) 『東洋時報』 105·106. 이 논문들을 통해 저자는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나바 이와키치가 러일전쟁 후 일본의 안정된 조선반도 지배를 위해 요동반도의 영유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그 역사적 근거를 고구려에서 찾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일본 동양사학자의 만선사 구상은 러일전쟁 이후 공유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1906년 여름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나바 이와키치, 나이토 고난(內藤浩南)이 京城에서 회담하였던 사실을 주목했다. 그리고 일제 수뇌부와 만주군 참모의 만선관을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이나바가 주장한 滿韓不可分이 러일전쟁 종결 직후 만주군 참모의 滿韓一統 경영 구상에 조응한 것임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만선사의 관점 즉 만선사관이 공유되고 또한 훈련된 기관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이하 만철)의 역사조사부였다. 1907년 12월 시라토리는 만철 초대 총재인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을 만나 만주사 연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 결과 1908년 1월 만철의 東京支社에 시라토리를 주임으로 한 역사조사부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만철 조사부의 활동과 만선사 연구에 대해서는 종래에

2) 旗田巍, 1964 「滿鮮史の虛想-日本の東洋史家の朝鮮觀-」, 『鈴木俊教授還曆記念東洋史論叢』; 李基東 譯, 1983 「‘滿鮮史’의 虛想」,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146쪽.

3) 鄭尙雨, 2010, 앞의 논문, 5~7쪽.

도 꾸준한 관심이 이어졌다.⁴⁾

저자는 이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검토를 이어갔다. 종래 역사조사부의 명칭은 ‘만선역사지리조사부’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공식명칭에 몇몇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저자는 출판물만 아니라 관련자의 여행기·회고록·일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설 당시의 명칭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만선역사지리조사부’라고 하는 명칭은 관계자의 회상과 후일 진행된 연구의 대상에 만주와 조선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소급된 데에서 비롯된 착오로 파악하였다. 저자는 창설 당시의 공식명칭은 ‘남만주철도회사 역사조사부’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만철 역사조사부의 공식명칭은 설립 당시 연구의 주안점이 만주사에 두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와 츠타 소키치(津田左右吉)에 의해 『삼국사기』와 같은 조선사 사료가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만철 역사조사부에서 조선사 연구는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였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비록 역사조사부의 공식명칭에 만선이 보이지 않지만, 그 연구에는 만선사관이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가 주목한 것이 고토 신페이와 만철 역사조사부의 「평양 고려총독부 설치안」이다. 이나바 이와키치의 회고에 따르면 고토 신페이는 만철 역사조사부를 방문해 조선에 설치하는 총독부의 위치로 京城이 합당한지, 그 명칭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문의했다고 한다. 이에 만철 역사조사부에서는 시라토리 구라키치를 중심으로 토의를 거친 후 滿鮮一如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총독부를 평양에 설치하고 명칭은 고려총독부로 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회답하였다고 한다.

물론 만철 역사조사부의 「평양 고려총독부 설치안」이 실행되지는 않았

4) 고바야시 히데오, 임성모 역, 「만철-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치림 : 櫻澤亞伊, 2007, 「滿鮮史觀の再檢討-滿鮮歴史地理調査部と稻葉岩吉を中心として-」, 『現代社會文化研究』 39 : 박장배, 2009, 「만철 조사부의 확장과 조사 내용의 변화」, 『中國近現代史研究』 43 : 박찬홍, 2009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75~79쪽.

다. 그러나 저자는 「평양 고려총독부 설치안」이 제의된 사실 자체에 주목했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 만선사관이 개인의 착상이 아니라 여러 역사 연구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인식되었고, 일제의 조선지배를 위한 현실적 논리로 정치성을 가졌음을 보여준다고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역사적 배경으로 고구려가 제시된 사실을 중시하였다. 평양의 고려총독부는 다분히 평양에 도움을 고구려를 의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철 역사조사부는 1915년 1월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요구에 의해 연구조사사업은 도쿄제국대학에 위탁·지속되었고 그 성과는 『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16책 : 1915~1941)로 간행되었다. 저자는 이 시기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사관이 일본의 대륙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대체로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사관은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정리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1922, 「滿鮮不可分の史的考察」, 『東洋』 25-5, 東洋協會이 대표적인 논문이다. 이에 대해 1920년대 만선사관은 3·1운동 직후 고조된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 또한 1920년대 조선인의 만주이주를 배경으로 하였는데 만주사에 대한 조선사의 종속을 강조하였다고 지적되었다.⁵⁾

저자는 이러한 종래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이를 보다 폭넓은 자료를 통해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불가분론은 구체적으로 만주지역의 不逞鮮人을 사상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면도 있었음을 밝혔다. 러일전쟁 이후 만선사의 구상이 본래 그러하였듯이, 1920년대의 만선사관도 일제의 조선지배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본 것이다.

5) 旗田巍, 李基東 譯, 1983 앞의 논문, 150~152쪽. 특히 타키자와 노리오키, 2003 「이나바 이와키치와 ‘滿鮮史」, 『한일관계사연구』 19, 117~119쪽에서는 조선인의 만주이민을 만선사 성립의 배경으로 중시하였는데, 그 기저에는 조선사회에 대한 정체성론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3.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선사의 전개

일제의 만주침략이 추진되며 만선사관은 한층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만선사관은 식민주의 사학의 조선사 연구와 다른 모습도 보였는데, 저자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단군신화를 주목했다. 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자의 대부분은 단군신화를 부정했다. 이나바 이와키치도 단군신화를 부정했다. 단군신화는 일제의 조선지배에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일제의 만주침략이 진행되며 이나바 이와키치가 단군신화를 재평가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나바 이와키치는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를 매개로 한 만선의 일체화는 긍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저자는 이나바 이와키치의 이중적인 단군인식을 지적했다. 즉 조선지배의 관점에서 단군신화는 부정의 대상이었지만, 만선불가분의 관점에서는 긍정의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일제시기의 만선사관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만주국의 건국을 계기로 논의의 폭이 넓어졌다. 만주국 건국으로 인해 만주사의 독립적 성격이 강조되었고, 만주사를 중국사에서 분리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러한 일본학계의 만주사는 중국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푸스넨(傅斯年)과 진위푸(金毓黻)가 대표적이다.⁶⁾

푸스넨과 진위푸는 만주 즉 동북지역이 중국의 일부임을 강조하였다. 만주사와 중국사의 구분은 일제의 만주·중국침략을 위한 것으로, 만주국 성립을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데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학계의 동북사 인식은 현재 중국 영토 안의 漢族과 非漢族을 모두 중화민족으로 보는 논리를 전제로 하였는데, 진위푸는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고구려의 남진을 중국 동북사의 확장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6) 이와 관련한 연구성과에 관해서는 강성봉, 2009, 『1930~1940년대 중국 지식인의 동북지역사 인식 - 푸스넨과 진위푸를 중심으로 -』, 조인성 외,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83~85쪽 참조.

저자는 이와 같은 만주사의 귀속문제와 역사체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인 학자의 주장이 상반된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만주국을 전제로 한 만주사가 반드시 학문적 논리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이를 이 시기 만주사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논쟁 자체가 민족과 국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하고, 여기에 근대 역사학의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김한규의 요동사가가 가진 의의와 한계도 지적하였다. 비록 김한규의 요동사는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시도로 주목되지만, 만주국 시기의 만주사와 유사한 역사지리적 공간을 설정하고 있는 데 반해, 그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 것이다.

만주국의 건국 이후 만주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는 것과 함께 만주와 조선의 관계도 중시되었다. 이에 저자는 조선총독부의 鮮滿一如나 만주국의 滿鮮一家를 주목하였다.⁸⁾ 그리고 만선일여나 만선일가가 모두 日滿·日鮮을 전제하였다고 하였다. 현실의 제국일본이 만선지역을 지배하게 되자 두 지역의 결속이 강조되었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만선사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된 데 주목했다. 1930년대 이나바 이와키치는 『삼국지』 동이전에 나타난 東夷의 여러 국가와 종족이 일체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만선의 범위가 요동반도와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하였다면,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역과 倭의 영역 즉 일본열도까지 확대하였던 것이다. 1940년대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의 만선사관도 이와 유사했다. 본래 미시나 쇼에이는 만주사와 조선사의 역사적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때에 이르러서는 만선사의 가능성을 긍정했다. 그 역시 일본과 만주·조선의 일체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7)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8)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로 다음이 주목된다. 任城模, 2009,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 ‘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보』 201 : 송규진, 2009, 「일체화 ‘선만관계’와 ‘선만일여론」, 『한국사연구』 146 : 정안기, 2011, 「1936년 鮮滿 首腦의 ‘圖們會談’과 ‘鮮滿一如」, 『만주연구』 12.

4. 만선사를 넘어 동북아시아사로

이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저자는 만선사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일제의 만주침략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종합·정리하였다. 요컨대 만선사관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조선반도 지배를 위한 사론으로 등장했고, 만철 역사조사부와 이나바 이와키치를 중심으로 연구·이론화되었으며, 일본의 만주·대륙침략에 보조를 맞추며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만선사는 일본의 조선·만주 지배를 전제로 만들어진 역사체계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만선사의 현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사가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하나의 역사지리적 공간으로 파악한 데 주목했다. 이는 현재의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역사체계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만선사적 시각이 요청된다고 하였고, 이를 동북아시아사적 시각으로 이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동북아시아사 시각은 역사귀속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비롯해 예족(濊族)이나 중국 군현처럼 현재의 국경을 넘어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저자는 만선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한 다음, 동북아시아사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체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저자의 치밀한 실증이나 새로운 역사체계의 모색을 위한 문제의식은 향후 이 방면의 연구에 중요한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다만 만선사를 비판적으로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이쉽게 생각된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분쟁과 같은 국가와 민족을 단위로 한 역사서술의 단위 즉 국사체계의 극복에서 출발하였다. 그런 만큼 비판의 초점은 국사체계에 맞추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 역사학과 일본의 제국주의·식민주의 역사학을 모두 근대 역사학의 국사체계 문제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저자는 1930년대 중국과 일본의 만주사·동북사 논쟁을 평가하며

양자가 모두 민족과 국경을 기준으로 한 이해방식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고구려사의 귀속문제를 둘러싼 역사분쟁을 전개하기 80여 년 전에 이미 중국과 일본의 역사분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기의 만주사나 만선사가 국사는 아니었다. 이 책에서도 1937년 만주국 건국 이후 만선사의 확대를 이야기하며 지적하였듯이, 만선사·조선사·만주사는 결국 제국일본을 전제로 하였다. 식민지의 역사로 제국사의 일부였던 것이다. 제국사는 제국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했고, 이 중에서 진정한 국사의 자격은 제국의 중심부에만 허락되었다. 제국의 주변부는 국사와 유사한 형태로 구상되었지만, 중심부 국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

더욱이 일제의 만선사는 만주사와 조선사의 불가분을 내세우지만, 역설적이게도 양자의 분리를 전제로 하였다. 결국 조선사를 만주사에 종속시킨 역사체계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사·만주사·조선사의 내적 발전과 정체성이 위계를 이루었고, 그에 입각해 주변부 역사의 타율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만선사관을 비롯한 식민주의 사학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비판했던 것이다.⁹⁾ 그러나 저자에게서 이와 같은 제국주의·식민주의 역사학의 문제점은 심각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저자의 지적처럼 현재의 국사체계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처럼 지금의 국경을 넘나든 역사를 서술할 때 그 특성을 사장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역사분쟁에서처럼 배타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사의 문제점은 서구·일본의 제국주의·식민주의 역사학과 근대의 속성(폐쇄성·배타성)을 공유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된다.¹⁰⁾ 그러므로 국사체계의 여러 문제점이 동북아시아를 단위로 한 역사체계로 의

9) 李基白, 1961, 「新論」 『國史新論』; 1971, 「植民主義의 韓國史觀 批判」 『民族과 歷史』, 一潮閣; 李龍範, 1963, 「韓國史의 他律性論-所謂 滿鮮史觀의 克服을 위하여-」 『亞細亞』 3월호; 金容燮, 1966,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 敍述」 『歷史學報』 31.

10) 임지현, 2004 「국사의 대연쇄와 오리엔탈리즘」, 『한국사학사학보』 10.

형만 바꾼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체계의 외형보다 오히려 구성방식이 심각히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곧 근대 역사학에 대한 반성으로, 이 글에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서는 새로운 동북아시아사 구성의 한 방법으로 중심부와 주변부의 해체를 제의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바라볼 때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하고, 중심부의 관점에서 주변부의 역사를 종속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고구려와 거란·말갈의 역사를 연구할 때 고구려를 중심으로 거란과 말갈을 주변부로 간주하면서, 고구려의 관점에서 거란·말갈에 대한 지배와 권력행사를 곧 발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¹¹⁾ 그러나 만선사를 비판적으로 재인식하고, 이와 함께 국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중심부와 주변부의 해체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른바 주변부의 관점에서 본 동북아시아사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거란과 말갈의 관점에서 고구려는 어떠한 존재였으며, 그의 역사가 동북아시아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의 연구가 축적되어야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주체가 부각될 것이고, 그래야 만선사와 다른 방식의 동북아시아사 모색이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투고일 : 2013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5일

11) 이와 관련한 한국사 서술의 문제점은 정다함, 2011, 『근대 한국의 역사 서술과 타자화된 여진족』,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 함께, 131~135쪽 참조.

참고문헌

- 旗田巍, 李基東 譯, 1983 「‘滿鮮史’의 虛想」,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 고바야시 히데오, 임성모 역, 「만철-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치림.
- 金宣旼, 2012, 「滿鮮史, 滿學, 그리고 滿洲學」, 『명청사연구』 38.
- 김일권, 2011, 「일제시기 조선사 편수와 만선사적 고구려사의 역설」, 『한국고대사연구』 61.
- 김중복, 2006 「渤海史 認識의 推移-南北國時代論을 중심으로-」, 『史林』 26.
-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 나카미 다츠오, 김준영 역, 2009, 「地域概念의 政治性」, 『만주연구』 9.
- 박장배, 2009, 「만철 조사부의 확장과 조사 내용의 변화」, 『中國近現代史研究』 43.
- 박찬홍, 2007(a), 「일제 ‘만선사학’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27.
- 박찬홍, 2007(b), 「滿鮮史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韓國史學報』 29.
- 박찬홍, 2009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 송규진, 2009 「일제하 ‘선만관계’와 ‘선만일여론」, 『한국사연구』 146.
- 송기호, 2007, 「분쟁의 해법찾기」, 『동아시아 역사분쟁』, 솔.
- 櫻澤亞伊, 2007, 「滿鮮史觀の再檢討-滿鮮歷史地理調査部と稻葉岩吉を中心として-」, 『現代社會文化研究』 39.
- 이정빈, 2012, 「식민주의 사학의 한국고대사 연구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검토」, 『역사와 현실』 83.
- 任城模, 2009,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보』 201.
- 임지현, 2004, 「국사의 대연쇄와 오리엔탈리즘」, 『한국사학사학보』 10.
- 정다함, 2011, 「근대 한국의 역사 서술과 타자화된 여진족」,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 함께.
- 鄭尙雨, 2010, 「稻葉岩吉의 ‘滿鮮史’ 체계와 ‘朝鮮’의 재구성」, 『歷史教育』 116.
- 정안기, 2011, 「1936년 鮮滿 首腦의 ‘圖們會談’과 ‘鮮滿一如」, 『만주연구』 12.
- 조범중, 2004, 「학문적으로 창작성 제3의 역사공동체」, 『요동사』, 『북방사논총』 창간호.
- 조인성 외,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최석영, 2004,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고구려·발해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 타키자와 노리오키, 2003, 「이나바 이와키치와 ‘滿鮮史」, 『한일관계사연구』 19.
- 한규철, 2004, 「연대별로 본 일본의 발해사 연구」, 『문화전통논집』 2,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홍성구, 2010, 「만주 역사를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의 한 모색-許穆과 丁若鏞의 만주 諸種族 인식을 端緒로」, 『역사와 담론』 55.

■ Abstract ■

Northeast Asian history Initiative by Revisiting of
Manchuria-Korea History

-The Review of Imperial Japan and Manchuria-Korea History
(Inoue Naoki, 2013)-

We, Ga-ya·Lee, Jeong-b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Inoue Naoki's study(2013 『帝國日本と‘滿鮮史’－大陸政策と朝鮮・滿洲認識－』, 塙書房) and to research historical significance. This book is written about the era background of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Manchuria-Korea History and in order to think about the question of title to Koguryo history. This Inoue Naoki's study is evaluated as several empirical results. He is revealed the deployment process of Manchuria-Korea History specifically; the plan of Manchuria-Korea History right after Russo-Japanese war, Koreans' Manchuria emigration in the 1920s, the Manchurian Incident and establishing the Manchukuo in the 1930s. In addition, he more clearly presented the fact as the model of Manchuria-Korea History is Koguryo history. So, he critically evaluated as Manchuria-Korean History, because it was made history in the process of Japanese continent invaded. On the one hand, he positively evaluated as Manchuria-Korea History, because it was the historical narrative beyond the national and country's history. However, Manchuria-Korean History was made history with Imperial Japan in mind. Therefore, the criticism of Manchria-Korean history should comment on Empire history criticism, not on national history.

Key words : Inoue Naoki, Imperial Japan, Manchuria-Korea History